

# 이민자는 정말로 미국 내 범죄의 온상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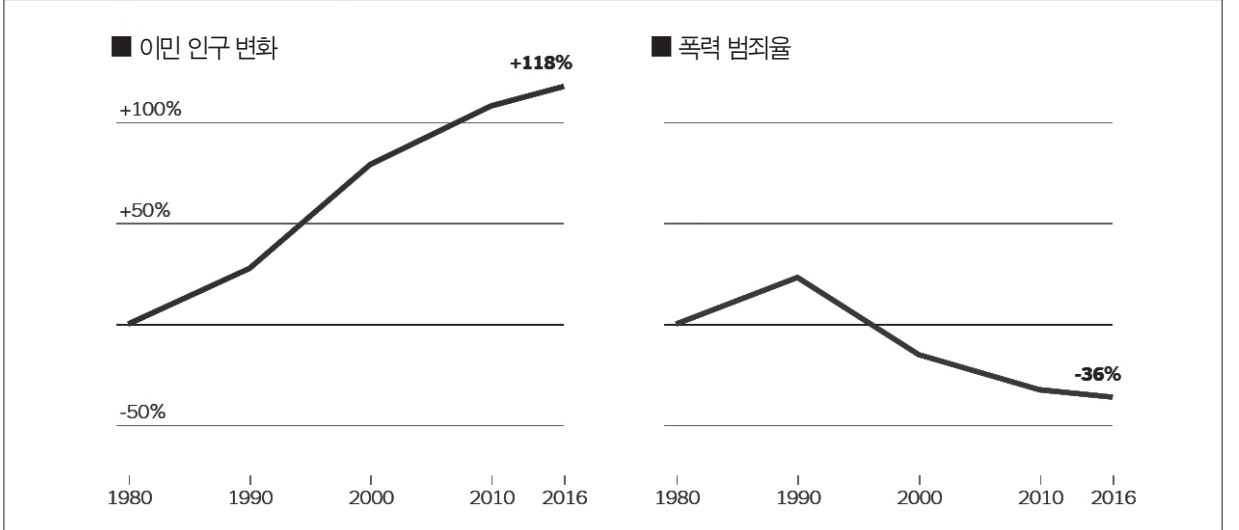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이민 단속이 펼쳐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관련 정책을 펼 때마다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온상”이라는 말을 앞세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불법체류 이민자, 마약상, 인신매매범, 강패들이 매일 같이 이민자 보호도시를 거쳐 미국 사회로 흘러들어온다. 이민자 보호도시란 말 그대로 범죄자들의 소굴이자 무법자들의 천국이나 다름없다.”

과연 이민자가 증가하면 범죄율도 증가할까?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의 안나 플래그(ANNA FL-AGG)기자는 지난 3월 30일 ‘The Myth of the Criminal Immigrant’라는 기사를 통해 이민자 증가와 범죄율과의 관계를 조명했다.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2017년 진행한 설문 조사를 보면 미국인 가운데 절반 가량은 “이민자들 때문에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난다.”라는 말에 동의했다.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 이민자들이 범죄를 더 많이 일으키고 사회를 위협하게 만들까?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많이 나와 있다.

미국의 이민자 인구는 지난 수십 년간 빠르게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범죄율은 정반대로 빠르게 낮아졌다. 오늘날 미국의 강력범죄율은 1980년대보다 훨씬 낮다. 뉴욕주립대학교 버팔로 사회학과의 로버트 아델만 교수가 이끄는 네 개 대학교 합동 연구팀이 지난 수십 년간 200여 개 도시 지역의 이민자 비율, 범죄율을 모아 비교했다. 뉴욕시 같은 대도시부터 뉴욕의 1/100도 안 되는 크기의 소형 제조업 중심지 인디애나주 먼시 같은 곳까지 미국 전역에 걸쳐 다양한 지역이 표본으로 선택됐다. 살펴본 지역 가운데 1980년대와 비교해 이민자는 늘었지만, 범죄율은 낮아진 곳이 많았다. 간간이 범죄율이 높아진 곳도 있었지만, 그 숫자와 범죄율 증감 폭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범죄율이 낮아졌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었다. 살펴본 지역 가운데 약 70%에 해당하는 136개 도시 지역에서 1980~2016년 이민자 인구는 늘어나고, 범죄율은 그대로이거나 낮아졌다. 범죄율과 이민자 인구가 동시에 늘어난 곳은 54곳으로 살펴본 전체 지역 가운데 약 25% 정도에 그쳤다. 이민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열 군데만 놓고 보면 2016년 범죄율이 1980년 범죄율보다 전부 다 낮았다.



▲ 연도별 이민 인구 변화 & 폭력 범죄율 비교 그래프. 뉴욕주립대학교 버팔로 사회학과의 로버트 아델만 교수의 네 개 대학교 합동 연구팀은 지난 수십 년간 200여 개 도시 지역의 이민자 비율, 범죄율을 모아 비교했다. 그 결과는 1980년대와 비교해 이민자는 늘었지만 범죄율은 낮아진 곳이 많았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 정부가 입안한 정책과 제안을 보면 이민자가 미국으로 범죄를 들여온다는 식의 주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얼마전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범죄 혐의를 받는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권한이 있는 연방정부 소속 이민 특별 사법경찰이 공무 집행에 위해 주 경찰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는데,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얼마 후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는 독자적으로 이번 소송에서 원고인 연방정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렌지카운티의 통계를 살펴봐도 다른 지역과 다르지 않다. 1980년 이후 오렌지카운티에 사는 이민자 수는 두 배 이상 늘었고, 전반적인 강력범죄는 1980년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데이터를 쭉 살펴보면 대개 상황은 둘 중 하나이다. 이민자가 늘어나면 평균 범죄율이 낮아지거나 이민자 수와 범죄율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민자도 늘어나고 범죄율도 높아진 지역이 54곳이지만, 이 경우에도 이민자와 범죄율 사이에 인과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1980~2016년을 10년 단위로 나누어 보더라도 일관적인 패턴이 나타났다. 이민자 수와 범죄율이 동시에 늘어나는 사례는 항상 소수이고 예외였다.

대부분 지역에서 이민자 수는 적어도 57% 정도 늘어났다. 183%나 늘어난 곳도 있었다. 특히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이민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전체 지역의 범죄율 추이는 대체로 43% 감소 ~ 6% 증가 사이였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반적으로 꾸준히 낮아졌다. 이민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곳이라고 해서 이민자 수가 조금 늘어났거나 거의 변함이 없는 곳보다 범죄율이 딱히 더 높지는 않았다. 1980~2016년 미국의 이민자 수는 평균 137% 늘어났고, 같은 기간 범죄율은 약 12% 감소했다.

대부분 지역에서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강력범죄가 낮아졌다. 폭력은 34% 감소 ~ 29% 증가로 다양하게 분포한 반면 강도는 12%이던 감소세가 57%로 훨씬 가팔라졌다. 살인율도 15%에서 54%로 푹 떨어졌다.

이번 연구는 지역별로 이민과 범죄의 관계를 연구한 작업 가운데 가장 포괄적으로, 오랫동안 데이터를 모아 진행한 연구이다. 도시 지역 데이터를 수십 년간 모아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이 천차만별인 도시와 지역을 비교하고, 또 강력범죄도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했다.

이민자가 늘어나도 범죄율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연구는 이밖에도 얼마든지 더 있다. 지난 1월 전 세계 각국 사람들을 상대로 이민과 범죄 사이의 관계를 묻는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연구 결과가 이민과 범죄율 사이에는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설사 관계가 있더라도 이민자가 지역 경제와 문화를 살리는 데 기여하고 범죄율은 줄이는 긍정적인 관계일 때가 많다고 나왔다.

CA Lns Lic # 0B18537
■ 은퇴 준비를 위한 재정계획 안내

## 최근에 은퇴하셨습니까? 곧 은퇴하실 계획입니까?

# 10%

즉석보너스

"과거의 심각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객중에는 손해 본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철통같은 원금보장 덕분이지요"

401(K) Rollover  
은행CD Account 이전

철통같은 보장성 연금플랜

증권시장의 위험성을 원천봉쇄하여 원금이 보장되며 Social Security 연금처럼 평생 마르지 않는 인컴이 보장되는 플랜

- Transfer: 은행CD, IRA Accounts
- Rollover: 401K, TSP 등 각종 직장 은퇴플랜

\* 직장을 옮긴 분들은 그 전 직장에서의 가지고 있던 Account를 하루 속히 옮겨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신천 보험·재정

714.323.7420

Email; choinsurance@yahoo.com

8308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